

패션은 4차산업이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 윤운수(Fila 코리아 회장), 이해익 공동칼럼

한국의 산업화는 경공업부터였다. 잊혀진지 오래지만 가발산업을 통한 수출 등 저 인건비를 토대로 하는 것이었다.

봉제산업도 그 중 하나였다. 외국의 바이어들은 샘플을 들고 들어와 OEM으로 봉제공장을 가동시켰다. 실컷 노예 공장(?)으로 훈련 받아왔다. 그렇게 한국의 봉제 산업은 성장해 왔다. 그러면서 원사, 원단 산업을 키우며 한국의 섬유산업은 발전해 왔다. 섬유산업은 현재도 한국 경제에 톡톡히 한 몫을 하는 무시 못할 수출산업이다.

앞으로도 좀 더 디자인과 기술개발에 따른 브랜드력의 강화, 다품종 소량 생산과 QRS(Quick Response System)를 배가해야 한다. 그래서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극대화 한다면 21세기에도 어느 첨단 산업 못지않는 수출전략산업이 될 수 있다.

반도체수출 호황이니 자동차 수출이니 요란하지만 주요 핵심 부품이나 기자재가 수입품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섬유산업은 한국 경제의 네 기둥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중공업화라는 국가경제 정책에 밀리면서도 곳곳이 자생해온 기특한 산업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부지런하고 숨씨 좋은 한국인이 만들어 낸 어여쁜 산업이다. 돌이켜보면 과거 일부 정부 정책당국자와 물질 모르는 학자들의 입방아로 사양산업이라고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기도 했다. 동양은커녕 쪽박까지 깨는 못난 소리들이었다. 원사, 원단, 봉제산업은 궁극적으로 패션산업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충분히 OEM으로 단련된 원사, 원단, 봉제산업이 패션산업으로 발돋움할 때 찬물을 꺼 었은 꼴이다. 그냥 놔두지도 않고 갈아뭇개는 듯한 사회 환경도 있었다. 이 산업의 종사인들이 다른 산업으로 전업도 많았다. 만약 섬유산업을 북돋았다면 한국인 자질로 볼 때 패션의 이태리와 버금가지 못할 리 없다고 필자는 단언한다.

원사, 원단, 봉제산업보다 패션산업은 부가가치의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아쉽다. 그러나

그런 국가경제 정책당국과 일부 물색 없는 이론가들의 말과는 다르게 소자본과 부지런함, 순발력과 발빠른 적응력을 토대로 무수히 쓰러지고 일어나면서 한국의 패션산업은 자생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동대문, 남대문 의류매장을 보라. 시시각각 대응하는 발빠른 패션의 질 좋고 싼 한국산 의류를 사러 온 러시아인, 일본인, 동남아인들은 물론 각국의 장사꾼들 때문에 불야성을 이루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가운데 세계적인 브랜드도 탄생할 것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동대문 패션과 남대문 패션은 이제 모방의 단계를 뛰어 넘은 듯 하다.

한국 패션의 저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패션기업에 종사해 본 필자의 생각으로는 한국이 반드시 패션 강국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패션은 4씨 산업이기 때문이다.

4씨란 맵씨, 솜씨, 마음씨, 셈씨를 뜻한다.

첫째, 한국인은 옷·맵씨·내기를 좋아한다. 또한 눈썰미도 대단하다. 자고로 의관을 정제한다는 게 중요 문화였다. 그것이 좋은 토양이 된다. 중국인은 먹어서, 한국인은 입어서, 일본인은 돈을 안 써서 망한다는 농담도 일리 있는 얘기다.

둘째, 한국인의 '솜씨'는 이미 세계적인 봉제강국으로 정평이 나 있다. 어떤 이는 어릴 때부터 젓가락을 사용하여 훈련된 손놀림의 발달이 토대가 되었다고도 한다. 모름지기 한국인은 손재주가 있다.

셋째, 옷을 만드는 것은 아무리 기계가 발달해도 정성이 뒤따라야 한다. 정성이 기본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인의 정성스런 '마음씨'는 60년대부터 현재를 관통하는 장점이다. 88올림픽 이후 다소 건방을 떨며 마음씨가 해이해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다행스레 IMF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도 맞았다.

넷째, '셈씨'란 무엇인가? 이제 패턴과 디자인과 재단은 컴퓨터로 해야한다. 기본 교육의 토대가 튼튼한 한국인의 컴퓨터 사용 능력은 어느 나라 사람들 못지 않다. 이렇게 '4씨'가 모여 패션이 된다. 의류는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코리아 등 다양하다. 브랜드는 하나여도 원산지는 각각이다. 그 중 메이드 인 코리아의 FILA가 인기가 좋은 것은 디자인 못지 않은 좋은 품질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한국 패션 산업의 미래를 또 한번 더 보는 것 같아 흐뭇하다.